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 26주일

제35권 44호(나해) 2015년 9월27일

[묵상]



< 사람의 생명은 계산에 달려있지 않다 >

달 은 왜 둥근가?

결실의 계절인 가을은 참으로 풍요로움을 더해 준다.

1년중 제일 크다는 보름달,

달 은 왜 둥근가?

우리네 마음도 이리도 둥글 둥글 했으면 어떤가?

대부분의 사람은 재물을 모으느라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사실 죽음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는지를 진지하게 묻고 있다.

전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은 죽을 때,
자신의 양손을 밖으로 드러나게 물어라 했다.

온 천하가 자신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 아무 것도 가져 갈 수 없다는 것을
후세에 남기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요즘 많이 힘든 때다.

그러나 우리네 마음마저 힘들어 진다면

어찌 살아가는 맛이 있을까?

힘든 때, 이웃을 생각하고,

서로 격려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하자.

- 오 -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일을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80-2789

월요일	새벽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미사 학생미사(영어) 낮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에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프레아(4째주) 성소후원회(첫목요일)	저녁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30
금요일	성경공부(구약성경통독) 소년 레지오 마리에	오전 9:30 오후 4:3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특전미사후
주일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페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 ● 꾸리아 3째주 - ● 요셉회 ● 사목회장단 4째주 -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3:00 오후 1:00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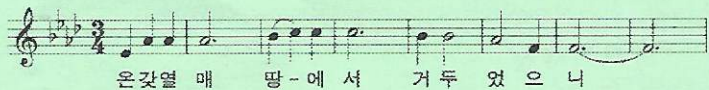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요 특전 미사	(연)
	(생)
주일 낮 미사	(연)이경용 야고보, 이운조 클라라, 김상진 토마스, 이용식 베드로, 전시웅 요한, 고준희 제임스, 민기남 모니카, 이종수 마틴, 김영식 & 김영자, 현시영 요셉, 빈센트 드 폴, 진은란 아네스, 최근미 세실리아, 낙태아 들 & 연옥영혼 (생)박홍룡 요셉, 박음전 아네스, 매피의 여왕pr.단원들, 민석준 토마스 & 민미애 & 민영준 마르코, 이원형 프란치스코 & 이만석 미카엘 & 이만표 가브리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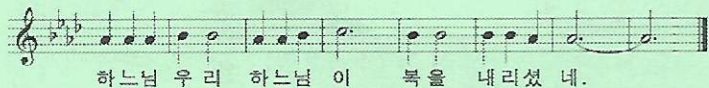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요엘 예언서 2,22-24.26 ㄱ ㄴ ㄷ

화답송 ○ 온갖 열매 땅에서 거두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이 복을 내리셨네.



온갖 열 매 땅-에 서 거 두 었 으 니



하느님 우 리 하느님 이 복을 내리셨 네.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겨레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 온갖 열매 땅에서 거두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이 복을 내리셨네.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제 2독서 요한 묵시록 14,13-16

복음 ○ 알렐루야.
환호송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복음 루카(Luke) 12,15-21

영성채송 주님, 땅은 당신이 내신 열매로 가득하옵니다.
당신은 땅에서 양식을 거두게 하시고,
인간의 마음 흥겹게 하는 술을 주시나이다.

가톨릭이란?

8.교구와 본당

교회 역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도(道) 단위 지방 자치 단체와도 같은 커다란 지역을 일컬어 교구(敎區)라고 부르는데, 이는 교황이 임명한 교구장 주교를 중심으로 신자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의 행정 구역을 말합니다. 교구는 좀더 작은 신자 공동체인 본당(本堂)으로 나뉘는데, 주교들의 협조자인 신부들이 상주하며 신자들을 보살핍니다. 본당에서는 신자들의 효과적인 신앙 생활을 돕기 위하여 가까운 이웃의 몇몇 가구가 모여 구성하는 작은 공동체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누구나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교구와 본당에 소속되어 신앙 생활을 합니다. 본당을 중심으로 신자들은, 앞에서 본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모습처럼, 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고 형제적 사랑으로 나눔을 실천하며 세상에 나아가 선교 사명을 수행합니다. 그러므로 본당은 천주교 신자들의 신앙 생활 터전입니다. 본당에는 신자들의 신앙 생활 지도를 책임지고 있는 주임 신부가 상주하고 있으며, 전교 수녀와 사무실 직원들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401	187	219
봉헌	255	346	267
성체	주품에	280	306
파견	199	224	224

오늘날 대도시 사람들에게 추석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추석, 한가위라고 하면 어릴 적 어머니와 동생들과 함께 송편을 빚던 추억이 떠오릅니다. 어려서부터 서울에서 살아온 저로서는, 음력 8월 15일에 처음 수확한 과일을 가지고 조상께 차례를 지내고 친척들이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눈다는 추석이 오늘날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농업 사회가 아닙니다. 공업국가도 아닙니다. 정보 산업이 매우 발달한 한국은 수출로 부자가 된 나라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날의 추석이 별로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황금색으로 변해가는 들판을 바라보면서, 처음 수확 과일을 가지고 산소를 찾아보고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상님들에게 차례를 지냈다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합니다. 부모님과 돌아가신 분들에게 고마워할 줄 알았다는 것이지요. 요즘 우리는 고마워할 줄 압니까? 부모님께, 조상님들께, 하늘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모르면서 살고 있는 않습니까? 내가 감사할 줄 모르면, 내 자식과 손주들도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아닙니까?

과거에는 사람들이 함께 농사를 지었습니다. 대가족을 이루고 살면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품앗이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컴퓨터와 스마트 폰을 가지고 혼자 살아갑니다. 가족이 오랜만에 함께 모여 식사하는 시간에도 각자 스마트 폰만 들여다봅니다. 몸은 함께 있어도, 마음은 따로 있습니다. 혼자 살 뿐입니다. 함께 살던 옛날이 부럽기도 하다는 생각이 얼핏

스쳐 갑니다.

삼국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한가위 축제를 다시 신나게 지내도록 함께 노력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첨단 산업이 아니면 살아남기 힘든 한국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부모님과 조상님들, 또 그 누군가에게 고마워 할 줄 아는 민족의 축제를 새롭게 지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족이라는 특별한 관계는 운명적입니다. 가족 안에서 태어난 우리는 가족부터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요즘처럼 편리한 세상에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낯설고 거추장스럽더라도 가족과 친척이 함께 만나서 기쁨과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축제의 전통을 오늘날 우리가 지혜를 모아 새롭게 시작하여 후손들에게 전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을 위해 교회가 함께하면서 나름대로 활기를 가져다 주는 것이 토착화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모와 조상께 대한 감사는, 하느님께 감사를 드려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미사에서 함께 천상 양식을 나누는 우리는, 추석 때 가족과 친척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는 것에 좀 더 정성을 기울이고 기쁘게 참여하면 더할 수 없이 좋겠습니다.

◆ 주수옥 신부 / 대방동성당 주임

이번주 전례봉사가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곽수진 보나	이호미 엘리사벳	남성철 베네딕도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박희자 마리아	송인선 안젤라
제1독서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이민상 요한	장영진 안토니오	제1독서자	시무궁 루이스	박진수 스테파노	신중철 아브라함
제2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이순자 비비안나	정명모 마리아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박혜경 레나타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서 1반	제물봉헌자			토남 1,2반

- ◆ 고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 한가위 합동위령미사

- 오늘 주일 오전 7시 30분, 11시 미사 후 분향 및 짧은 연도가 있습니다.

◆ 무료 독감주사 안내

- 일시 : 오늘주일 (27일)
- 장소 : 7시30분, 11시 미사 후 야외 친교장 또는 강당
- 18세이상으로 계란흰자 알리지 없는분, Guillan Barre Syndrom (기안 바레 증후군, 말초다발성신경증) 이 없는분
- 주최 : 사회복지분과

◆ 페루 선교에 보낼 학용품을 모읍니다

- 배론 청년회에서 페루의 어린이들에게 기부하려고 학용품을 모으고 있습니다(10월까지).
- 사무실에 비치된 박스에 도네이션 해 주세요
- 가방, 공책, 필기도구, 미술도구 등 (새것 또는 깨끗한 것)
- 문의 : 박현희 프란치스코 ☎(310) 592-4739

◆ 주일학교 견진반 모집

- 수업시간: 저녁 7시 ~ 9시, 격주 수업
- 10월 7일 등록마감
- 견진1년반, 2년반 등록비: \$50
- 자격: 주일학교 9학년 이상
- 문의: 서정우 Francisco Xavier ☎(310) 408-9070

◆ 한국학교 공지사항입니다.

1. 추석 행사

- 주제 : 추석 행사를 통한 전통 문화 배우기
- 일시 : 오늘주일 오후 12시 - 오후 3시
- 장소 : 각 교실, 친교장
- 내용 : 송편 만들기 & 민속 놀이 (제기차기, 막지치기, 윷 놀이, 투호놀이)

2. 2016 미주한인의 날 기념 미술대회 개최

- 주체 : LA한국교육원
- 참가대상 : 유치원에서 12학년까지
- 기간 : ~ 10월 20일(화)
- 작품 제출처 : 로스앤젤레스한국교육원
680 Wilshire Place, #200, Los Angeles, CA 90005
※ 우편제출 - 소인 10월 20일까지 접수 가능함

3. 2015년 제1회 한글학교 수기 공모전

- 대상: 한글학교 교사, 보조교사(TA), 학생, 학부모
- 내용: 한글학교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다양한 소재의 수기
- 마감 : 10월 27일(화) e-mail: ksaaca@hotmail.com 제출
- 제출 방법:
 1. MS Word/ 12 font / 3page 미만(Cover Sheet 제외)
 2. Cover Sheet : 제목/한영이름/소속학교/ 신분(학생,교사, 학부모 등)/전화번호/e-mail
- 문의 : 213-700-9399 / 103skcecks@gmail.com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9월27일 : *PV3반 : 콩나물 비빔밥과 오이냉국 (Free)
* 주일학교 : 콩나물 비빔밥과 오이냉국 (Free)
- 10월4일 * 소공동체 : 김밥 (\$4),
* 주일학교 : 떡볶이 (3학년)

지난주 우리들의정성

교무금	강순복 강태홍 경철호 고천용 권오상 권태만 김대우 김성택 김원호 김인성 나경흠 박운모 박진수 변정선 안민수 원건희 유경자 이근태 이병우 이우성 이재철 이현주 이효세 임 순 최원석 황인중 이크리스	성전헌금	강태홍 경철호 고천용 권오상 권태만 김대우 김원호 나경흠 박진수 변정선 안민수 원건희 유경자 이병우 이우성 이현주 이효세 임 순 최원석 황인중 이크리스
	합계:\$3,055		합계 : \$ 1,850
주일미사 헌금 :\$2,196		감사헌금 : 신동훈(\$100), 이홍권(\$300)	

“새 신자 환영합니다.”

☺ 서로 인사 합니다. ☺

남가주 소식

◆〈밥하기보다 쉬운 글쓰기〉무료강좌

미주가톨릭문인협회(회장:정찬열)가 시 수필 창작에 관심 있는 가톨릭 신자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무료 강좌를 실시합니다.

- 일시 10월 12일(월)7시~9시pm (매월 두번째 월요일)
- 회비 : 없음
- 주관 : 미주가톨릭문인협회
- 장소 : 한국 교육원(680 Wilshire Pl #102 L.A

*☎714-530-3111

◆이나시오 성인의 영신 수련안내(9개월간)

- 일시 : 2015년 9월 ~2016년 6월
- 주관처 : Loyola Institute for Sprituality
- 장소 : 로올라 영성센터
480 S Batavia St Orange, CA 92868
- 문의 : 전 아네스 ☎(213)507-1144

◆ 성 아그네스성당 커피교육 안내

- 일시 : 10월4일(주일) 1시~5시,
10월5일(월) 6시~10시,
- 교육 : 첫날 3시간강의,1시간실습, 첫 교육후 10회 실습
- 교육비: \$200
- 장소 : 1415 Dana St. LA, CA 90007
- 문의 : ☎(323)731-4433

[기도묵상]

우리가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돌파구를 찾는 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언제나 기도입니다.
몇 달 동안 줄곧 한 가지 해결책을 찾아보지만
끝내 이를 찾아내지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감실 앞으로 가십시오.

- 복자 야고보 알베리오네

소공동체 부 장 김 준 방지거 625-3312
차 장 박영희 아가다 422-1119
차 장 유지아 클라라 793-6157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남명자 데레사 991-4838 9/12(토) 오후 7시
	2	장수영 패트릭 781-0787	본당의 날로 대체
	3	윤미애 안나 560-7120	윤미애 안나 560-7120 9/18(금) 오후 7시30분, 성당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김정삼 크리스티나 490-9662	본당의 날로 대체
	2	윤경옥 설비아 909-557-7490	본당의 날로 대체
	3	박명순 안나 968-7600	본당의 날로 대체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508-2912	1	김준 방지거 625-3312	본당의 날로 대체
	2	박정람 파르시아 634-6923	본당의 날로 대체
	3	김유미 사비나 738-5305	김희연 루시아 213-458-3356 9/12(토) 오후 6시
토런스 북 정병옥 윌리아 404-1607	1	황지영 안젤라 938-8089	이복임 엘리자벳 938-8089 9/14((월) 오후 7시 성당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주대종 다니엘 818-640-	1	박진수 스테파노 / 749-3151	김금자 데레사 749-3151 9/12(토) 성당
P. V.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본당의 날로 대체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본당의 날로 대체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장 안드레아 562-472-4727 9/12(토) 11시 성당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본당의 날로 대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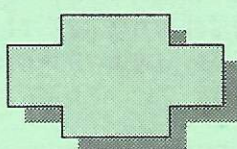
이번 주 단체 모임

사목회의 오후 1시

다음 주 단체 모임

구역장 / 반장회의 오후 1시

기도의
신분



식사 전후 기도






글: 사목국 선교전례사목부 그림: 박우철 도영고

저녁 식사 전, 배고픔을
참지 못한 우리의 마르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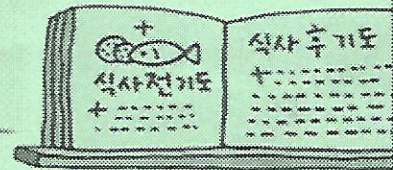


마르코, 식사 전 기도하고
먹어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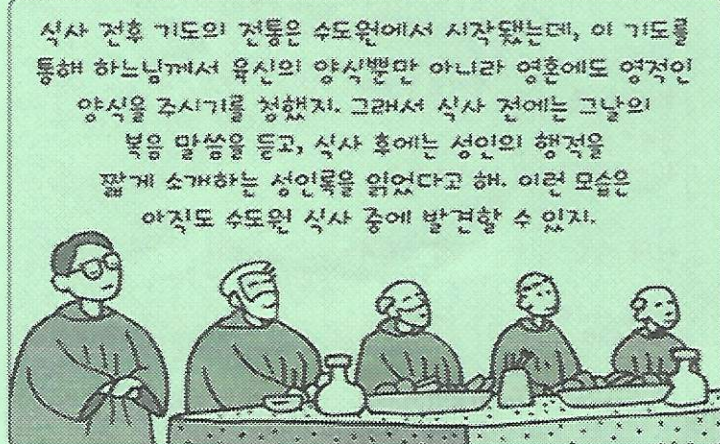
애는 만날
맛보고 난 후에
기도를 해요.
혼나야 해!



그리스도인이란 혼자서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든
식사 전이나 식사를 마칠 때에 날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먹는 음식에 대하여 감사를 드려야 한다.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마련해주신 음식에 대해 항상
하느님께 축복을 청하면서 감사 기도를 바쳤듯이, 우리도
식사 전에 하느님께, 그리고 음식을 마련해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식사 전후 기도의 전통은 수도원에서 시작됐는데, 이 기도를
통해 하느님께서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에도 영적인
양식을 주시기를 청했지. 그래서 식사 전에는 그날의
복음 말씀을 듣고, 식사 후에는 성인의 행적을
짧게 소개하는 성인묵을 읽었다고 해. 이런 모습은
아직도 수도원 식사 중에 발견할 수 있지.



또 옛 수도원에서는
식사 전후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한 영적인 양식을 제공하기
위해 기도를 바쳤는데,
이런 전통이 지금 우리 식사 후
기도에 들어와서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하심으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야.



식사 전후 기도는 우리의 신앙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쉬운면서도 훌륭한 방법이다.
나의 시선을 의식하며 부끄럽다는 핑계로
이 소중한 기도를 바치지 않는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일까?

오약~ 밥은
언제 먹어요?

이제
그만하고
먹어요!



“식사 전에 신자들은 차려진 음식이 하느님께서 배부신
복의 표지임을 알고, 음식을 못 먹는 가난한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하여 절제 생활로 궁핍한 사람들을
힘껏 도와주고, 때로는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대로
그 형제들을 식탁에 가까이 초대할 수 있어야 한다.”

『식사 전후의 축복 예식』 『축복예식』 783항



최초의 순교자 스테파노 부제

초대교회는 신자들의 수효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교회 안에는 히브리말을 사용하는 유대인과 그리스말을 쓰는 유대인(그리스계 유대인)이 함께 공존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말을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본토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터뜨립니다. “왜 거룩한 교회에서 우리 같은 그리스계 유대인들을 푸대접합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이야기를 들은 본토 유대인들은 “우리가 조사를 해보고 조치를 취할 테니 걱정 마십시오.”라고 안심시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서 그리스계 유대인들은 불평을 터뜨린 것일까요?

성경을찾아 읽어 보세요! 사도신경 6,1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 수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부작용이었습니다. 사도들은 교회의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은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본래의 직분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두 사도가신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 놓고 식량 배급에만 골몰하는것은 옳지 못합니다.” 사도들은 신자 중에서 협조자를 뽑아그들을 도와주도록 했습니다. 협조자를 뽑는 기준은 무엇이였을까요? 이 기준은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와 봉사자를 선택하는 데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협조자가 뽑힌 다음에 사도들은 무슨 일에만 전념하기로 했습니까?

성경을찾아 읽어 보세요! 사도신경 6,2-4

사도들의 협조자로 선택된 일곱 명의 부제 중 스테파노는 특별한 믿음을 지녔던 분입니다. 스테파노는 하느님의 은총과 성령의 힘을 가득히 받아 백성들 앞에서 놀라운 일들과 굉장한 기적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스테파노는 중상모략을 당해 유대인의 돌에 맞아 쓰러지게 되는 운명을 맞게 됩니다. 스테파노란 체육 경기에서 우승자에게 씌워주는 ‘면류관’이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이름대로 그리스도를 위해 최초로 순교하여 승리의 면류관을 쓴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스테파노는 죽기 전 예수님께 어떤 기도를 바쳤을까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사도신경 6.8-15 / 7,54-60

스테파노의 순교는 교회에 대한 대박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예루살렘의 신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사건이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전파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강한 인상을 남기고 짧은 생애를 마감했던 스테파노 부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감동적인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관호 속을 채워보세요 !

“그러니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서
()이 좋고 ()과 ()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찾아내십시오.
그들에게 이 직무를 맡기고, 우리는
()와 ()에 만 전념하겠습니다.”
(사도 6,3-4)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에()는,
“주 예수님, 제()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사도 7,59)

부끄럽다, 무릎

할머니 무릎에 누우며 옛날이야기 들려주시고,
아버지 무릎에 누우면 부채로 더위 식혀주시고
엄마 무릎에 누우면 컵밥 파주셨더랬지.
한 분, 두 분 가시고 이제 머리 둘 곳 없어지니
매양 무릎에 누울 줄만 알았지
내 무릎 내어줄 줄 몰랐던 걸 알았네.
그렇게 한 것도 없는 내 무릎,
워한다고 앓을 때 시리고
일어날 때 걸리나.

-이영 아네스-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개별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855-388-4141

1001 S. Vermont Ave., #209,
Los Angeles, CA 90006

썬사이드 장의사

www.sunnysidecremation.com FDR #2224

이민 1세로 열심히 가족을 위해 희생하시며 살아 오신 분들은 품격있는 서비스로 예우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2세와 다리역할을하며 영어와 한국어로 새로운 장례문화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 감동을 드린 "마이스토리"를 100부 무료로 제공합니다.

24시간 LA: 213-500-8434

활인 통증 전문 한의원

최이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2140 W. Olympic Bl. #422 LA, CA 90006

☎(213)480-0911

Kim's Music & Art School

Piano, Violin, Clarinet, Saxophone, Cello, Flute, Guitar
창의력 발달 아동 미술, 포트폴리오 준비

*주말 ROBOTICS & LEGO수업

www.kimsmusicschool.com

☎310-387-5772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New Star Realty

홀리 크로스 묘지분양

합장묘지, 크립트, 납골당

Jean Kim

☎ (213)842-8366

JJKim@LACatholicCemeteries.org

IF LASER DESIGN Jewelry & Design

625 S. Hill St. Ste 244

Los Angeles, CA 90014

213-955-0038 김시문*미리암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이 난의 주인을
기다립니다.

A - ONE

AUTO CENTER

BODY & PAINT

자동차 종합정비, 디젤트럭 정비

☎(310)965-0481

www.aonetruckauto.com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Walnut Pastry

COCOHOODO Torrance

(Internet Cafe)

2734 Sepulveda Bl. CA 90505

☎(310)530-3875 BBCN 은행 옆

"정성과 사랑으로 만든
술도라지로 마음을 전달하세요."

-오 쟈마-

한 국 장 의 사

LA(FD74), 놀워(FD1134)

(562)868-0788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형편에 맞춰 상담해드립니다.

사우스베이에서 오셔도 편리합니다.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 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찬구 요한 ☎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이 난의 주인을
기다립니다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이 난의 주인을
기다립니다.

광고문의 사무실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Max Cargo Inc.

International Air/Ocean Freight Forwarder

국제 항공/선박 운송/NVOCC

정충로 안토니오

(310)323-8100, Fax (310)323-8884

19825 Hamilton Av.

Torrance, CA 90502

플 라 자 약 국

PLAZA PHARMACY

Tel: (310) 530-3010 Fax: (310)530-7618

3400 W.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불란서 안경 검안과

FRANCE VISION OPTOMETRY

3104 W. Olympic Bl. L.A., CA 90006

(213) 487-1001

Elizabeth & Dr. Linda Lee

StateFarm

Heather Chong (정혜경)Lic#0143602

310-316-3400 자동차/주택/생명보험

3655 Torrance Blvd #120 Torrance, CA

ECONO LUBE N' TUNE

이코노 종합 정비

타이어 얼라인먼트 스모그 체크 브레이크

310-534-0150 김클라라

2514 SEPULVEDA & CRENSHAW



몬테소리 토요영재학교

U.S JMI KIDS COLLEGE

평생을 좌우하는 3세~7세 두뇌 발달 몬테소리 토요

영재학교에 맡기세요 전화 : 213-434-1314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